

육신으로 오시다

© 2005 년 3 월 아셰르 인트레이터

아버지께서 예수아보다 크시지만, 구속 계획의 능동적 중심부는 아들에 있습니다. 인류가 죄를 범했기에, 인간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.

고린도 전서 15:21-22

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,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.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,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.

그리고 인간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.

요한 복음 5:27

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. 그것은,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.

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살도록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거하시고자 물리적 인간을 지으셨습니다.

고린도 전서 6:19

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?

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물리적 행성에 살게 하심으로써,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(창 1:26, 시 115:16 참고). 사탄이 인류로 범죄케 하였을 때, 그는 불법이지만 효과적으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앗아갔습니다. 그는 일시적으로, 이 세상의 흉악한 “신”이 됐습니다 (고후 4:4).

예수아께서 오셨을 때, 그 분께선 자연적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했습니다.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. 주께서는 당신의 자유 의지와 물리적 육체를 갖고 오셔서, 합법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.

요한 복음 1:14

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

예수아의 탄생은 엄청난 기적으로, 인류사의 달력을 그 전과 후로 나눠놓기까지 합니다. 예수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지 않고, 영으로나 천사의 모습으로, 혹은 환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의 사명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. 그러한 교리는 예수아에 반하는, 반메시아 (적그리스도) 교리일 것입니다.

요한 일서 4:2-3

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,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

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.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.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.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.

예슈아께서 육체로 오심에는 그 분의 탄생만이 아닌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. 예슈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실제로, 물리적 죽음을 맞으셨습니다. 거기엔 그 분의 죽음 만이 아닌 부활도 포함됩니다. 유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화된 물리적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(눅 24:39).

부활 40 일 후, 예슈아께서 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. 승천하신 그대로 예슈아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(행 1:11). 그 분의 발이 물리적으로 올리브 산으로부터 올려졌듯, 곧 다시 올리브 산을 밟게 될 것입니다 (행 1:9).

예슈아께서 물리적으로 출생하여 아담의 권세를 상속하셔야 했습니다. 아담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. 또한 아담이 마귀에게 내어준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되찾기 위해 물리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.

그 분께서 이 땅의 권세를 찾기 위해 돌아오지 않으신다면, 실상 사탄으로 하여금 이 땅의 “신”으로 영원히 살도록 허용하시는 꼴이 될 것입니다.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슈아께서 물리적 몸을 입고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. 그 혼란은 마귀의 기만입니다. 예슈아의 육신으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 분의 육신으로 오신 초림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일서 4:2-3).

“육신으로 오심”이란 것은 아기로 처음 오셨던 것 뿐 아니라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. 사탄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를 믿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. 심판하시는 왕 예슈아를 믿지 않는다면 말이지요.

“오다”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“바”입니다. 이 단어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같습니다. 그러므로 과거든, 현재든 미래든 “오고 계신다”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메시아의 구름 속에 “오심”에 대한 삼중 의미를 보게 됩니다. 예슈아께서 올리브 산에서 구름 속으로 들려지셨고, 구름 속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.

스가랴 14:4-5

그 날이 오면,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,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.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뺏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.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.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.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때에,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,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.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.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.

여기도 “오다”라는 단어가 있지요. 이것이 육신을 가리킬 수 밖에 없는 것은, 그 밭이 올리브 산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. 누구의 밭이냐고요? 예슈아의 밭입니다. (**스가랴 14:4의 밭은 사도행전 1:9의 밭과 동일한 것입니다.**)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주가 누구십니까? 예슈아이십니다.

예슈아의 육신으로 “오심”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:

- 1) 성육신
- 2) 십자가 형
- 3) 부활
- 4) 승천
- 5) 재림

이 중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반 메시아의 영입니다. 예슈아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넣고, 인류를 부활시키며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취해,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.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, 창조와 구속, 부활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.

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길, 그리고 하늘에서와 똑같이 그분의 뜻이 이 곳에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(**마 6**). 많은 이들이 자신들은 이 땅을 떠나길 기도합니다. 하늘에서 이뤄진 일들이 하늘에서 이뤄지도록요.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.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선, 예슈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.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재림을 위한 환경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.

실제적 재림을 믿기 위해선, 실질적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. 그 때는 임박해 있습니다.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분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. 최대의 정치적 전투는 성전 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무슬림들이요 가장 큰 영적 전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예슈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종교적 유대인들입니다. 이 전투의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이나 종말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.

우리는 실질적 재림을 믿습니다.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실 것입니다 (**시편 24:1**). 이 땅은 재생(再生)될 것입니다 (**마 19:28**). 자연은 구속될 것입니다 (**롬 8:21**). 하늘과 땅은 예슈아에 의해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(**엡 1:10**). 에덴 동산은 회복될 것입니다 (**계 22:1-2**). 하나님과 인간은 조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(**계 21:3-4**). 모든 게 완벽할 것입니다.

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. 바룩 하바. 오시는 분이 복되십니다. 마라나타. 주 예슈아여, 속히 오시옵소서.

추가:

성경에는 실질적 재림과 이 땅의 구속을 증명하는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러나 그 반대로 읽혀질 수 있는 구절들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.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1.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(**요 14:1-2**)

2. 새 하늘과 새 땅 (계 21:1)
3. 너희 가운데 있는 왕국 (눅 17:21)
4. 공중에서 그 분을 뵈 (살전 4:17)
5. 태양의 부재 (계 21:23)
6. 별들의 추락 (계 6:13-14)
7.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(요 18:36-37)

이 구절들을 함께, 올바른 문맥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.

1. 아버지의 집 - 그렇습니다. 우리에게엔 하늘의 거처가 있습니다. 그 곳을 “하늘의 예루살렘”이라 부릅니다. 지금 누구든 믿음 가운데 사망하면 그 곳으로 갑니다. 예수아께서 재림하시면 이 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그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. 그러나 천년 왕국의 끝에, 그 천상의 거처가 내려와 땅과 연합하게 됩니다. 천상의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(계 3:12; 21:2, 10).

2. 새 피조물 -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“새롭게 된”이라는 뜻입니다. 새 땅이나 새 몸 (혹은 부활)을 이르듯 말입니다. **베드로 후서 3:5-13**에는 예수아 재림 때의 새 피조물이, 노아 홍수 (“새로운” 하늘과 땅) 전과 후에 비견하리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의 시각에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, 이 지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. **마태복음 19:28**에는 “피조물의 새롭게 됨”이 언급됩니다. 새 하늘과 새 땅은 또한 **이사야 65:17**의 인용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도 이 땅의 붕괴가 아닌 갱신이 나타납니다.

3. 내재하는 왕국 - 물론 하나님 왕국은 내재하는 것이지만, 팽창하기도 합니다. 그 나라는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씨앗처럼 자라 온 땅을 덮게 됩니다 (**마 13:31-32**). 여러분 안의 영적 왕국이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듯, 그 왕국엔 이 물리적 땅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이 부활하면, 이 땅도 구속될 것입니다 (**롬 8:21**).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아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의 확장입니다. 그것은 영적 차원을 다윗의 왕국으로 증대시킵니다 (**사 9:1; 눅 1:31-32**). 더해질 뿐 줄지 않는 것입니다.

4. 공중에서의 만남 - 예수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. 우린 그 분께서 내려오시는 길에 그 분을 뵈 것입니다. (여기서 “만나다”는 단어는 **마태복음 25:6-10** 과 **사도행전 28:15** 에서 쓰인 “만남”과 같은 것으로, 모두 누군가를 영접해 들인다는 것이지 떠나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.) 우리는 오시는 왕을 맞아 들이는 것입니다. 여기서 혼란을 낳는 것은 두 번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예수아께서 다시 오실 때,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 둘째 부활을 기다릴 것이나, 그 분과 특별히 다스리도록 택함 받은 이들은 먼저 부활하여 이 땅에 그분의 정부가 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(**계 20:4-6**). 이 때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들이 더욱 복된 것이지요.

5. 태양의 부재 - 성경은 태양이 없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. 태양이 필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. 아들의 영광스런 빛이 너무나 강렬해, 우리는 태양의 자연광을 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그대로 있다 해도 말이죠. 방 안에 우리가 불을 켜게 되면, 태양 빛이 필요 없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지요. 아들의 빛 (Son light)을 인해 우리에게엔 태양 빛 (sunlight)이 필요 없겠지만, 태양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. 아들의 빛은 예수아 안에 만이 아니라, 태양과 아들과 더불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안에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이 말씀은 **이사야 60:19**의 인용으로, 여기서도 땅의

새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

6. 별들의 추락 - 이것은 별들을 없애 버리신다는 뜻이 아닌,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(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)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우주적 지진이자 회전인 것입니다. 별들의 떨어짐은 **이사야 13:10-13** 과 **이사야 34:4** 의 인용인데, 문맥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흔들림이 있고 난 뒤 피조 세계가 지속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

7. 내 왕국 - 예수아께서 당신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 “말미암지”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그분의 권세의 근거는 인간의 정치계에 있지 않습니다. 그분의 정복 방법은 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.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 “말미암지”는 않지만, 이 세계 가운데 퍼져갈 것입니다 (희생적 사랑과 영적 능력을 통해). 예수아께서는 “지금”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는 “나중엔” 그리 되리라는 것입니다. 그 나라는 이 세상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(**계 11:15**). 또한 이 목적을 위해, 곧 자연적 태생으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.